

오늘의 계시관

행사 (21일)
▲광주·전남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킹을 위한 조찬회의=오전 7시30분 신양파크호텔 사파이어홀. 김영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광주·전남 여성과학기술인의 발굴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강연.
▲전남체신청, 사랑의 산타 집배원 발대식=오전 8시30분 서광주우체국. 고객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맡기면 오는 23일 산타 복장을 한 집배원이 직접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위한 산타 집배원 50명의 발대식.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 캠페인=오전 11시 여수시청 및 여수시 중앙동과 여서동 일원. 22일 오전 11시 화순군청 및 화순전남대병원 일대. 장애인먼저 실천 전남운동본부 소속 자원봉사자와 후원인 등 120여명 참석해 '장애인 먼저'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 및 홍보 전단지 배포.
▲제 85회 21C 답양포럼=오후 3시30분 답양

전남체신청, 사랑의 산타 집배원 발대식

오전 8시30분 서광주우체국

군 문화회관 대공연장. 이보규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장이 '21C 사회변혁과 우리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
▲제 55회 황토골 자치마당=오후 4시 무안군 송달문화예술회관. 양병무 한국인간개발연구원장이 '디지털 시대를 재미있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
▲제 516회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변은섭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회장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향약 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강연.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오후 5시 금호빌딩.
▲자매결연 후원 사은회 및 비전선포식=오후 6시30분 광양제철소 백운대 2층 연회장. (22일)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이동희 선비문화연구원장이

'기업경영자와 선비정신'에 관해 강연.
▲임방울 국악재단 정기 이사회=오전 11시 센트럴 호텔.
공연
▲광주시립합창단 제 122회 정기연주회 '2006 겨울 그리고 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캐롤'=21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제 21회 황토제 공연 '남도지야'=21일(목)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제 39회 목요 열린 국악학미당=21일(목) 오후 7시 빛고을 국악전수관.
▲광주시립교향악단 제 231회 정기연주회 'A Merry Christmas'=22일(금)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외제 창작스튜디오 오픈전=27일까지 외제미술관 일대. 김지섬·천대광·안향희·진시영·

이정록 등 국내 작가 5명과 사리타 동골(Sarita Dongol·네팔)·하지메 미주타니(Hajime Mizutani·일본)·시아페이 창(Hsia Fei Chang·대만)씨 등 해외 작가 6명 참여. 21일 성완경 2004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박만우 2006 부산비엔날레 현대미술전 감독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작가와 대화 시간.
▲빛고을 사진회 발표전=3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기차와 기차길을 담은 사진 작품 전시.
▲자유시간=23일까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전시관. 전시회 기획동아리 '자유시간'의 창립 기념전.
▲환경과 자연 미술제=27일까지 갤러리 자리아트. 광주시 환경미술협회회원들의 정기전.
▲박일정전=12월31일까지 고흥도화현대미술관. 도판화(陶板畵·도자기로 만든 판에 그린 그림) 작품 전시.

뉴스퀴즈

43.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 15회 도하 아시아인 게임이 16일 새벽(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 58개·은 53개·동 82개를 획득, 일본(금 50·은 71·동 77)을 제치고 당초 목표순위를 달성했습니다. 종전 대회보다 메달 수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지난 1998년 방콕 대회와 2002년 부산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같은 성적을 지켜냈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의 종합 순위는 몇 위인가?
① 1위 ② 2위 ③ 3위 ④ 4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올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처변환비 지표기사 추천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남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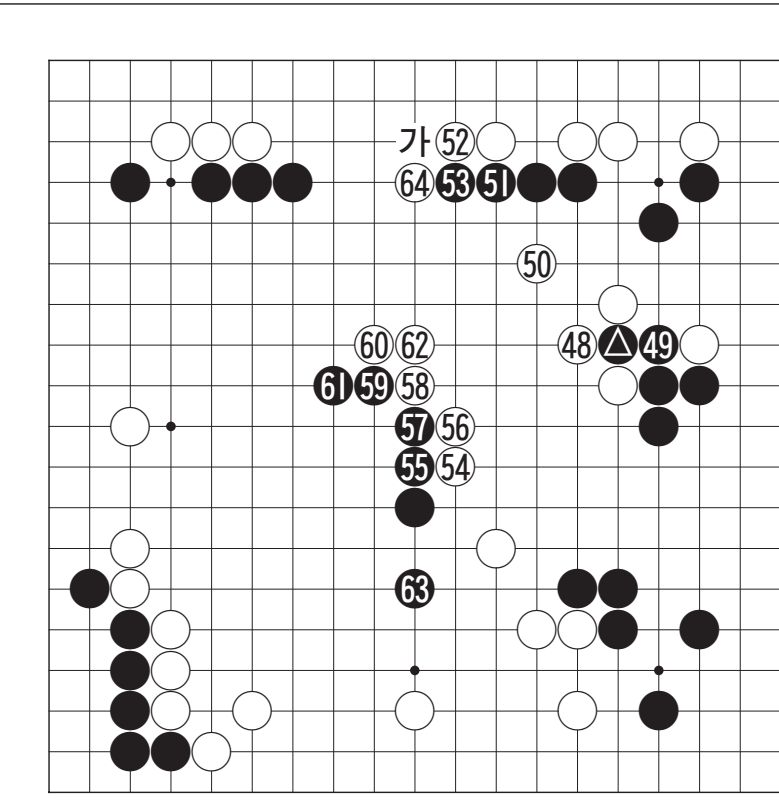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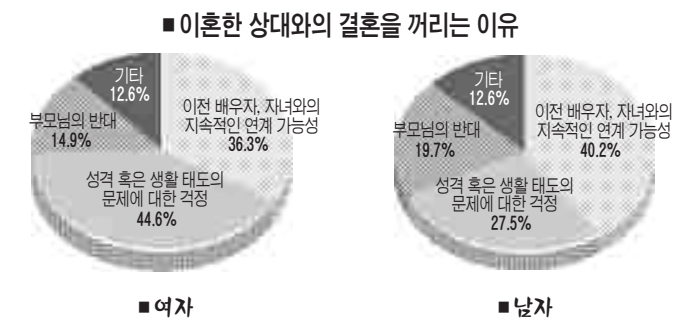
결혼을 앞둔 20대 중반~30대 중반의 '총각'·'처녀'들 10명 중 7명은 재혼녀, 재혼남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녀들의 재혼녀·재혼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결혼정보회사 ㈜다스클럽에 따르면 지난 11월 미혼 남녀 1천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2.2% (남 74.3%·여 71.4%)가 이혼 경력이 있더라도 결혼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혼 경험이 있는 상대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답한 경우는 27.7% (남 25.6%·여 28.4%)에 불과했다.
특히 설문 조사에서 '사랑한다면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33.3% (남 47.5%·여 22.0%)에 달했다. 또 남자는 22.5%, 여자는 44.1%가 '솔하에 자녀가 없다면 결혼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있더라도 양육하지 않는다면 결혼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4.2% (남 2.5%·여 7%), '양육 중인 자녀가 있더라도 결혼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2.6% (남 0.1%·여 4%)로 조사됐다.
다스클럽은 "이혼 경험 남녀의 자녀 유무에 대해서는 남성이 더

조사됐다.
한편 결혼상태의 나이와 이혼경력에 대해서는 총 57.7% (남성 60.1%, 여성 56%)가 이혼 경력의 유무보다 나이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해 나이가 적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결혼상태를 선호하는 추세, 그리고 이혼율의 증가로 재혼자에 대한 편견이 적어졌음을 동시에 입증해 주었다.
제공 결혼정보회사 다스클럽
(www.daksclub.com)
문의 : 1588-6665

'결혼 경력은 서류상의 기록일 뿐'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혼한 상대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혼한 상대와의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4.2% (남 40.2%·여 36.3%)가 '이전 배우자나 자녀와의 지속적인 연계 가능성'을 꼽았다.
또 '성격이나 생활태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경우가 33.7% (남 27.5%·여 44.6%)로 나타났다. 이와 '부모님의 반대'를 가장 큰 이유라고 답한 응답자는 15% (남 19.7%, 여 14.9%)로



제8회 이창호비 우직한 수 흑 53 4보(48~64)
전국 아마 바둑 선수권 대회
백 조민수 7단 (전남)
흑 김호진 5단 (서울)
흑 51은 당연하며 53도 이 한수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수가 모양에 치우친 우직한 수였다. 지금은 중앙싸움이 승부의 관건으로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을 선수하고 3으로 급소를 때려야 했다. 이러면 '가'의 끊는 수와 '나'의 봉쇄 등이 있어 중앙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조민수 7단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실전의 달인. 흑 53을 보더니 즉각 공수의 요체인 백 54로 두어 흑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백은 자연스럽게 우변의 약한 돌들이 두터워졌고 흑은 아직도 중앙이 불안한 모습이다. 흑 63은 '가'로 찢히고 싶은 곳. 백 64가 날카로운 반격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안조영, 원익에서 이창호 제압
안조영 9단이 20일 한국기원 바둑 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기 원익배 8강전 8강전에서 전기 대회 우승자 이창호 9단을 188수 만에 백 불계로 꺾고 준결승에 선착했다.
지난 2000년 이후 이창호 9단과 역대 전적에서 1승1패로 '절대열성'이었던 안 9단은 중요 대국에서 이 9단을 꺾고 올해 마지막 본선 대국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이 9단은 이 패배로 한국바둑리그 13라운드부터 시작된 연승행진을 '7'로 마감했다. 대회 총 상금 규모는 2억8천만원, 우승상금은 3천500만원(준우승 1천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Table with 12 rows, each representing a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Each row contains a brief horoscope for that sign, including dates and lucky/unlucky numbers.

굿모닝 잉글리쉬 <802>
May I go?
가도 됩니까?
A: Mom, may I go over to Tony's house?
B: It's getting late.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A: Yes, please, may I go?
B: As long as you're home in time for dinner.
A: 엄마, Tony집에 놀러가도 되요?
B: 끝 어두워질 텐데, 숙제는 다 끝냈니?
A: 모두 끝냈어요, 가도 되요?
B: 제때에 저녁밥 먹으러 오면 돼.
go over to ~ : (~로) 나가다
It's getting ~ : 곧 ~ 할 텐데
As long as ~ : ~하는 한
in time for dinner : 저녁식사 시간에 때 맞춰
May I ~? : ~해도 됩니까?
- May I come in? 들어가요 되나요?
- May I have a look at the annual report? 당신의 연례 보고서를 봐도 되나요?
-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모두들 집중하세요

오하이오 니혼고 <802>
スナックや酒のつまみとして、よく食べますからね
심심풀이나 술안주로 잘 먹으니까요
A: 落花生(らっかせい)って、秋が旬(しゅん)だそうですね。
B: そうなんです?一年中、出回っているから、そんなこと、考えたこともなかったですね。
A: スナックや酒のつまみとして、よく食べますからね。
B: そういえば、落花生の本場(ほんば)と言ったら、千葉縣(ちばけん)のものですが、柔(やわ)らかくて、齧(か)ごたえがしつとりしているそうですね。
A: 땅콩은 가을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B: 그렇습니까? 일년 내내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A: 심심풀이나 술안주로 잘 먹으니까요.
B: 그리고 보니까 땅콩의 본고장이라고 하면 지바현인데, 부드럽고 씹는 맛이 촉촉하다고 해요.
落花生(らっかせい) : 땅콩
出回(でまわ)る : 돌아다니다
スナック : 일본의 술집의 한 형태
酒(さけ)のつまみ : 술안주

니하오 쫑구워 <520>
靦腆
보기 좋다, 마음에 들다
A: 你长得好, 看起来不错, 挺可爱的嘛。
B: 谢谢夸奖, 其实我长得一般, 谢谢夸奖。
A: 你长得好看, 看起来不错, 挺可爱的嘛。
B: 谢谢夸奖, 其实我长得一般, 谢谢夸奖。
A: 너 잘생겼어, 마음에 들어.
B: 네가 너무 칭찬하고 있어.
A: 우리가 친해 나가기엔 넌 너무 귀엽잖아.
B: 귀엽게 생겼으면 좋지 뭐.
靦腆(에둘름) : 창황하다, 창황하다
靦腆(에둘름) : 보기 좋다, 마음에 들다

한자 이야기 <420>
墨守(묵수)
먹묵, 지킬 수
묵수(墨守)는 '묵자(墨子)의 지킴'이라는 뜻이다. 묵자가 지킨 성이 몇 번이나 공격을 받았지만 함락되지 않았던 일에서 자신의 주장을 굳게 지키고 바꾸지 않는 것을 비유한다.
전국(戰國)시대 공수반(公輸盤)이 초(楚)나라 왕을 위하여 문제계(雲梯) : 성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대형 사다리)를 고안하여 송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비전론(非戰論)을 주장하는 묵자는 이것을 듣고 노(魯)나라에 있다가 곧바로 초나라에 달려갔다.
묵자는 초왕을 만나서 "영토의 넓이로 보면 의식주의 풍족함으로 보면 모든 면에서 송나라보다 우세한 초나라가 일부러 출병(出兵)하여 아무런 죄도 없는 송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마치 비단옷을 입은 자가 이웃집의 헛웃을 훔치는 행위와 같다"고 왕을 설득했다. 대왕이 궁해진 초왕은 공수반의 재주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자, 묵자는 즉시 허리를 풀어 성책을 만들고 나무 조각으로 방패 대용의 기계를 만들어 문제계로 공격하는 공수반과 모의(模倣) 전쟁을 벌였다. 아홉 번 교전(交戰)하면서 공수반의 무기는 모두 다 사용하였지만, 묵자 쪽은 아직도 지킬 여유가 있었다. 이로부터 '묵수'라는 말은 나라를 지켰다는 비유가 되었고, 견고한 수비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